

동북아해역 근대 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사 검토 -서학(西學)의 수용과 한국 근대지(近代知)의 형성을 중심으로*

서광덕**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IV. 나가며: 연구과제 |
| II. 연구사 검토 | 참고문헌 |
| III. 향후 연구 전망: 동북아해역에서의 서학 유통 | <Abstract> |

〈국문요약〉

근대 지식의 수용 그리고 근대 학문의 수립 과정에는 우선 근대 지식으로 대변되는 서구의 학문 곧 서학-물론 이 서학의 범위도 광범위하지만 통칭해서 부른다면-이 어떤 방식으로 동아시아에 전래되었고, 동아시아 지역내에서는 또 어떻게 유통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학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은 그 서적이 어떻게 전파되고 보급되었는지 또 서학을 배운 사람들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했는지 하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학문과 그것을 학습한 이들과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발생한다. 이 과정은 종교적, 사상적, 과학적, 운동적 측면이 얽혀서 작동한다.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 수용과 함께 일어난 충돌은 실로 대단했고, 과학으로 대변되는 서구 근대 학문의 토대는 종래의 전통적인 학문과는 결합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인문학적 바탕 위에서 전개된 전통과 근대의 대립은 긴 시간에 걸쳐 전개되었고, 그 가운데 번역어의 탄생과 개념의 번역이란 형태를 통해 소위 서구의 근대 지식을 전유해나갔다. 초기 새로운 지식의 수용에 따른 혼란은 점차 제도화를 통해 정착되어갔는데, 동아시아 각국은 대학을 비롯한 교육 기관을 설치하여 이를 강고하게 만들었다. 국가에 의해 설치된 이와 같은 기관 밖에서는 출판물 통해 지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출판(또는 서적상)이 공

* 이 글은 단국대 HK+사업단 국내학술대회(2019년 3월 22일)에서 발표된 것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 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식적인 학교와 다른 차원에서 근대 지식의 전파를 수행한 점에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처럼 동북아해역에서 전개된 근대 지식을 둘러싼(유통)네트워크의 양상에 대한 검토는 방대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근대 지식이 단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그 내부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횡적인 검토가 중요하다. 또 이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통하기 때문에 종적으로도 점점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어떤 특정한 지역과 시대를 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시기적으로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까지를 설정하고 지역은 동북아해역으로 한정하여 연구사를 검토하였다.

주제어: 동북아해역, 근대지식, 서학서, 출판, 번역, 과학

I. 들어가며

최근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의 매체를 이용한 지식 수용과 유통 방식의 변화는 학술연구 및 교육 방식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이는 지식의 대중화를 추동하지만, 또 도서의 출판을 약화시키고 있다. 종래의 지식 생산과 수용의 방식이 바뀌고 있으며, 또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의 형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원래 근대와 함께 시작되었다.

근대 이전의 지식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반면에 근대 이후 지식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지식을 일반인들 누구나가 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국민국가의 수립과 국민의 양성이라는 정치적 요구에 힘입은 바가 컸다. 소위 근대적 교육제도는 이를 뒷받침했다. 또 근대적 출판업이 활기를 띠면서 학교가 아니더라도 대중들은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도서를 통해 자유롭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식의 보급과 유통에서 그 지식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서학이라고 불렸던 서구 근대의 지식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西學이란 지식의 수용에 따른 새로운 지식의 형성과 소위 근대학문의 수립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통된 현상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근대학문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근대학문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하여 이것의 성립과정에 대

동북아해역 근대 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사 검토
-서학(西學)의 수용과 한국 근대지(近代知)의 형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검토, 또 최근 근대학문에 대한 비판적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대학문의 성립 과정은 조선시대까지의 전통적인 학문과 소위 서학이라는 외래 학문의 충돌 그로 인한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살피고, 이것이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이후 현재까지 어떤 형태로 정리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탐구해야 한다.

서학이라고 통칭하더라도 서학의 내용은 아주 다양하고, 전통학문 역시 그것의 범주가 넓으며 또 서로 다른 학문이 부딪히는 시기와 지역 그리고 학문을 다루는 주체에 의해서도 지식의 내용은 다르다. 그래서 각 학문의 내용을 살피고, 또 학문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그룹 그리고 지방이나 국가 등의 지역으로 확장되는 지식 네트워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하나의 학문이 성립하는 데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학술네트워크의 형성이 수반된다. 특히 학술담당계층간의 네트워크에는 문서(책)이라는 매개물의 유통 즉 지식의 유통이 있기 마련이고, 이 유통이란 측면은 특히 근대 동아시아의 서학 수용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서학의 수용은 동아시아의 특정 국가나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동아시아 지역내에서 서학은 다양한 형태로 전파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서학의 수용은 결국 서학서의 유통으로 이루어졌고, 그 서적은 중국, 조선, 일본간에서 뿐만 아니라, 각국의 내부에서도 전해졌는데, 이 현상을 밝혀내려고 할 때, 각국간의 유통은 동아시아역내의 교통망과 무역망 그리고 사절단과 같은 각종 교류망을 검토해야 하고, 내부의 유통은 서적상이나 인적 지식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19세기중엽 이후는 근대적인 인쇄술과 출판업이 흥성하였기 때문에 동북아해역에서 서적의 유통 역시 상업적인 측면(출판자, 서적상, 구매자라는 틀)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근대문물의 전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들은 상인, 선교사 그리고 외교관, 유학생 등인데, 곧 상인은 교역을 위해, 선교 단체는 선교를 위해, 외교관은 국가를 위해, 유학생은 자신과 가족 및 민족을 위해 근대 지식을 수용하고 이를 내면화했다. 이 글은 19세기말 20세기초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학의 수용 및 유통 양상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연구 경향을 살피고, 여기서 연구가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여 향후 연구의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사 검토

현재까지 한국의 근대학문 성립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한국 근대학술의 성립은 안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밖에서 들어온 다양한 지식이 근대학문 수립을 추동했다. 따라서 한국학 전공자들의 연구도 검토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밖에 중국이나 일본 나아가 구미를 연구하는 이들의 연구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는 지면의 한계상 전자에 초점을 두되, 필요한 경우 후자의 연구도 함께 거론토록 한다. 근대학문의 성립과 관련된 연구사를 검토하기 위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연구 분야를 예상할 수 있다.

- 1) 제도적 측면: 근대적 교육기관(대학)의 수립
- 2) 운동적 측면: 전통학문의 변신과 민간 학술집단의 변화
- 3) 사회적 측면: 매체의 변화와 시장을 배경으로 한 공론장 등의 형성과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
- 4) 종교적 측면: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한 전도서 등의 유입과 배포, 전도서 판본(한문/한글)
- 5) 개념적 측면: 개념사 연구 곧 개념의 수용과 변용 연구
- 6) 언어적 측면: 근대 중국 및 일본계 한자어의 수용
- 7) 서지학 측면: 근대 서학서 판본과 유입 시기 및 수용 주체에 대한 연구
- 8) 사상적 측면: 북학파 등의 조선 유학자의 사상과 서학(천주교)
- 9) 과학적 측면: 서구 자연과학 수용의 양상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진행되어온 연구 성과를 이 제한된 지면에서 모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논문은 ‘동북아해역과 인문네트워크의 역동성 연구’라는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되는 관계로, 근대 이후 동아시아의 근대 지식이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주목한다. 그래서 위에서 제기한 많은 분야의 연구사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와 관련한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를 집

동북아해역 근대 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사 검토
-서학(西學)의 수용과 한국 근대지(近代知)의 형성을 중심으로

증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근대 지식의 수용 그리고 근대 학문의 수립 과정에는 우선 근대 지식으로 대변되는 서구의 학문 곧 서학-물론 이 서학의 범위도 광범위하지만 통칭해서 부른다면-이 어떤 방식으로 동아시아에 전래되었고, 동아시아 지역내에서는 또 어떻게 유통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학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은 그 서적이 어떻게 전파되고 보급되었는지 또 서학을 배운 사람들에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했는지 하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학문과 그것을 학습한 이들과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발생한다. 이 과정은 종교적, 사상적, 과학적, 운동적 측면이 얽혀서 작동한다.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천주교 및 기독교 수용으로 인해 일어난 충돌은 실로 대단했고, 과학으로 대변되는 서구 근대학문의 토대는 종래의 전통적인 학문과는 결합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인문학적 바탕 위에서 전개된 전통과 근대의 대립은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가운데 번역어의 탄생과 개념의 번역이란 형태를 통해 소위 서구의 근대 지식을 전유해나갔다. 초기 새로운 지식의 수용에 따른 혼란은 점차 제도화를 통해 정착되어갔는데, 동아시아 각국은 근대적 학교를 비롯한 교육 기관을 설치하여 이를 강고하게 만들었다. 국가에 의해 설치된 이와 같은 기관 밖에서는 출판물 통해 지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출판(또는 서적상)은 공식적인 학교와 다른 차원에서 근대 지식의 전파를 수행한 점에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과 같은 간략한 정리를 통해서도 동북아해역에서 전개된 근대 지식을 둘러싼(유통)네트워크의 양상에 대한 검토는 방대한 작업이 아닐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근대 지식이 단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그 내부에서만 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횡적인 검토가 중요하다. 또 이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동함으로써 종적인 점검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과 시대를 확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까지를 설정하고, 지역은 동북아해역으로 한정하여 연구사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공간적 배경에서 아래 세 가지 범주로 연구 성과를 파악해본다.

1. 서지학 측면

동아시아에서 서학의 수용과 유통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책 곧 서학서의 유통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 서학서가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현황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서지학 분야의 학위논문과 몇 편의 개별 논문에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윤주영, 「중국본 서학서의 한국 전래에 관한 문헌적 고찰」(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시대구분	天文·算法類			地理類	醫學類	政法類	西教類			합계	비율 (%)	
	천문류	曆法류	산법류				성서·격언류	眞教辯護類	신철학류			
17세기	전반	5		1	3		1	2	2		14	11.4
	후반	2	2	1							5	4.1
18세기	전반	4	21	4	1				2	2	34	27.6
	후반	1	2	2	3	1	5	12	15	7	48	39.0
19세기	전반			1			1	12	3		17	13.8
	후반	1				4					5	4.1
합계		13	25	9	7	5	7	26	22	9	123 (중)	100 (%)

그런데 이 논문에서 다룬 123종의 소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목록을 실학자들의 개인 문집과 관변사료의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파악했다고 적을 뿐, 그 자료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그리고 123종은 조선 말기 고종 때 구입한 서학 서적은 빠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사항은 먼저 현재 국내의 어디에 어떤 서학서가 실존하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 규장각이나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및 송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등 고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서학 목록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고종은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서학서를 중국에서 구입했는데, 그 책들은 대부분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新內下書目과 春安堂書目과 같은 목록에서는 서양 관련 서명들이 다수 실려

동북아해역 근대 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사 검토
-서학(西學)의 수용과 한국 근대지(近代知)의 형성을 중심으로

있다. 실제로 고종이 중국에서 간행된 서양 관련 서적들을 구입한 사실은 『內下冊子目錄』에서 확인된다. 1884년에 작성된 이 목록은 약 600종의 도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서양서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집옥재도서 중의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도 서양 관련 중국본 서적의 구입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데, 天, 地, 人 3책으로 분책된 이 서목은 상해에 있는 16개 서점의 판매도서 목록을 모은 것이다. 서목들에는 서점별로 100여종에서 400여종에 이르는 서적의 목록과 가격, 그리고 각 서점의 위치와 고객 유치를 위한 인사말들이 적혀 있다. 이 인사말 중에는 연도가 확인되는 것은 대부분 1887, 1888년이다.¹⁾ 이처럼 고종은 조선의 개혁을 위해 상해를 비롯한 중국에서 다양한 서학서를 집중적으로 구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학서 구입의 주체나 시기를 봤을 때, 이 책들이 개혁 정책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 계몽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1910년까지 약 15여 년간 조선 정부에서 구입한 서학서가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소화되어 활용되기까지는 시간적으로 부족했을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연구의 주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고종 이후 들어온 서학서의 종류 또 그것의 활용과 유통에 대한 것인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는 중국에서 들어온 서학서가 어디서 제작되고 어떤 경로로 구입되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서학서가 정부 관리나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일찍이 신용하와 이태진의 논문에서 규장각목록을 정리하면서 그 가운데 서학서의 목록을 정리해서 소개한 바 있고 그 이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²⁾, 후자와 관련해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듯하다. 물론

1) 李泰鎮, 「奎章閣 中國本 圖書와 集玉齋圖書」, 『민족문화논총』 16, 1996

2) 신용하, 「규장총목해제」, 『규장각』 4호(1981), 신용하, 「규장각도서의 변천과정에 대한 일연구」, 『규장각』 5호(1981), 延甲洙, 「高宗 初中期(1864-1894) 政治變動과 奎章閣」, 『奎章閣』 17(1994), 이태진, 「奎章閣 中國本 圖書와 集玉齋圖書」, 『민족문화논총』 16(1996), 이태진, 「1880년대 고종의 개화를 위한 신도서 구입 사업」,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2000), 신경미, 「高宗 年間(1863~1907) 서적 刊行 양상과 그 성격 -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HOMO MIGRANS』 16(2017), 민희수, 「규장각 소장본으로 본 개항기 서양 국제법 서적의 수입과 간행」, 『奎章閣』, 47권(2015); 장영숙, 「『內下冊子目錄』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관련 서적 수집 실상과 영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권(2009); 황정연, 「고종연간 緞敬當의 운용과 宮中 書畫收藏」, 『문화재』, 40권(2007).

『內下冊子目錄』를 보면 당시 고종이 수입한 책이 『萬國公法』과 같이 주로 제도와 문물, 그리고 외교와 연관된 서적이 대다수이며 서양의 사상이나 종교에 관한 서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후자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검토가 필요한 것은 1910년 이전 일본을 통한 서학의 수용은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1876년 개항 이후 수신사가 몇 차례 파견되었는데, 이들을 통해 일본에 전래된 서학서가 조선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겠(3)다. 또 조정과 관료들을 통한 서학서의 수입과 보급이란 측면 외에도 조선후기에서 개항기까지 발달한 민간 출판과 그 서적의 유통에서 서학서는 없었는지 하는 것도 연구가 필요하다. 조선 후기 방각본 한글소설이 유행했듯이 개항기를 거치면서 민간에서 석인본 서적이 많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이 서적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가운데 서학서는 없는가 하는 점도 살펴야 할 것이다.

2. 제도적 측면

앞에서 말한 조선에서 서학서의 유통과 보급은 제도적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그것은 출판업의 성장과 서적상을 통한 유통이란 측면 그리고 서적 및 매체를 매개로 한 지식인들간의 교류와 지식의 대중 보급 또 근대적 학교 및 연구기관의 설립을 통한 근대 지식의 범주화와 제도 교육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를 모두 ‘제도’라는 이름으로 포괄할 수 있을 듯하다. 고종의 개혁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에서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지상의 과제가 되었던 시기에 근대 지식의 보급은 정부의 과제가 되었다. 물론 민간에서 자발적인 근대 지식의 수용과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근대국가 수립이란 목표에서

3) 이와 관련해서는 정훈식, 「수신사행록과 근대전환기 일본지식의 재구성」, 『한국문화논총』 제56집, 2010. 정훈식, 「사행록의 역사적 전개와 일동기유」, 『열상고전연구』26집, 2007. 정훈식·남송우, 「조선후기 일본지식의 생성과 통신사행록」, 『동양한문학연구』29집, 2009. 이효정, 「19세기 후반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을 통한 지식·문화 교류의 한 양상 - 『스에마츠 지로 필담록(末松二郎筆談)』을 중심으로」, 『한국문화논총』 제78집, 2018. 조항래, 「병자(1876)수신사행과 대일인식」, 『강좌한일관계사』, 현음사, 1994. 하우봉, 「개항기 수신사행에 관한 일연구」, 『한일관계사연구』10집, 1999.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5. 황호덕, 『근대네이션과 그 표상들』, 소명출판, 2005.

동북아해역 근대 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사 검토
-서학(西學)의 수용과 한국 근대지(近代知)의 형성을 중심으로

관료들의 해외시찰을 비롯해 유학생 파견에 이르기까지 일차적으로는 정부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고, 이후 민간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근대 지식의 수용과 유통이란 형태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 역시 이 논문에서 전부 다룰 수는 없다. 앞의 서지학 방면의 연구와 연관지어 출판업의 성장과 서적 유통이란 측면에서 현재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조선후기의 서적 유통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조선은 조정이 앞장서서 온갖 서적을 출판하고 유통했다는 것이다. 책을 펴내려고 군신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하는 것은 조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그 자리에서 임금은 마치 출판사의 편집장처럼 책을 기획하고 관리하며 교정했다. 심지어 정조(正祖, 재위 1776-1800)는 책을 인쇄할 때 어떤 활자를 쓸지 꼼꼼히 따져 보기까지 했다고 한다. 아울러 책을 펴내는 것 못지않게 흠어진 책을 모으는 일도 중요했다. 필요한 책이 있다면,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책을 찾았다. 그래도 못 얻는 책은 중국에서 들여왔는데,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사신에게 책을 사오는 일은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였다. 청(淸)의 한 관료는 燕京의 서점가를 휩쓸다시피 하며 책을 사가는 조선인들의 모습이 인상에 찍혔는지 그것을 묘사한 글을 쓰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책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일은 정부가 나서서 할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곧 조정이 출판사였던 셈이다.

그리고 지방관청에서의 출판 역시 중앙부처에서 내려보낸 책을 복제한 목판본을 만들거나, 직접 지방에서 필요한 책을 만들어 보급하는 방식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주로 관청에서 책을 출판하였으나, 조선후기에는 사찰에서 불경, 서원에서 문집, 유력가문에서 족보, 판매를 위한 책을 출판하기 위한 민간 출판이 성행하였다고 한다. 당시에 출판에는 필사하는 방법, 철활자나 나무활자로 인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활자를 만들어서 인쇄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글자를 빌려서 인쇄하는 방법도 썼다. 하지만 글자를 빌려서 인쇄하는 것 역시 비용이 적지 않게 들었으므로, 필사본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 후기 최고의 출판편집인으로 알려진 중인 장혼(張混, 1759-1828)은 정조에게 사랑받으며 교정 보고 책 만드는 일로 반평생을 보낸 인물이다. 정조가 1790년에 감인소(監印所)를 설치하고 책을 인쇄하고

반포하려 할 때, 장훈은 교정보는 일을 하였다. 장훈은 후에 인왕산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과서를 직접 만들어서 인쇄를 하였다고 한다. 이 장훈의 문집이 필사본으로만 전해지고 있는 것도 활자를 빌려서 인쇄하는 것의 비용 때문이었던 듯하다.⁴⁾

18세기 전반의 연행록에 나타난 조선과 청 사이의 서적 교류 양상은 다음의 세 가지가 두드러진다. 1)서반(序班)을 통한 서적 구입; 서반은 사신 일행의 접대를 담당하던 청국 예부(禮部) 소속의 관원인데, 연행사의 서책 구입은 주로 이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서반은 당시 출판문화가 발달했던 강남 지방 출신의 한족으로 서책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일정한 이익을 취했다. 2)중국 문사와의 교류를 통한 서적 교류; 연행사는 북경에 머물면서 중국 문사들과 교류하며 최신 서적에 관한 정보나 문학적 관심사를 교환했다. 3)천주당 선교사를 통한 서학서 접촉; 북경의 천주당은 18세기에 조선의 사신들이 오래 들르는 관광 명소의 하나가 되었는데, 천주당에 대한 관심은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⁵⁾

북경에 온 조선 사신들은 강남에서 올라오는 서적들이 모이던 유리창을 자주 찾아, 그곳에서 필요한 서적들을 대거 구입해 갔다. 명말이후로 출판 및 서적 유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중국 전역에 책을 유통시키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런 중국의 상황과 조선 사신들의 서적 구입의 연관성을 따져야 한다. 게다가 조선의 서적중개상도 살펴야 하는데, 보통 書僮(冊僮): 1)서울에서만 활동하는 부류 2)서울과 지방을 왕래하던 부류 3)지방(도시)에서만 돌아다니던 부류로 나눌 수 있다.⁶⁾

그런데 뜻밖에도 ‘출판 왕국’ 조선에는 서점이 없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민간에서 방각본 출판과 세책업이 성행했지만,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서점이 들어선 중국에 견주면 뒤늦은 편이었다. 사실 조선에서도 서점을 세우자는 논의가 몇 차례 있었으나, 끝내 제대로 된 서점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대신이 서점 설립을 탐탁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서점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는 힘을 받지 못했다. 대신

4) 허경진, 『조선의 중인들-정조의 르네상스를 만든 건 사대부가 아니라 '중인'이었다』, 알에이치코리아, 2015

5) 신익철, 「연행록을 통해본 18세기 전반 한중 서적교류의 양상」, 『泰東古典研究』 25집, 2009

6) 이민희, 「조선과 중국의 서적중개상과 서적 유통문화 연구」, 『東方學志』 141호, 2008

동북아해역 근대 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사 검토
-서학(西學)의 수용과 한국 근대지(近代知)의 형성을 중심으로

들은 중국처럼 많은 사람에게 보급할 만큼 책을 생산할 수 없다거나 책을 살 수 있는 수요자가 적다는 논리를 들어 서점 설립을 반대했다. 하지만 반대한 진짜 이유는 바로 정권의 유지와 관련된다. 조선에서 책은 지식과 정보를 담은 매체를 넘어 권력의 상징이었다. 나라에서 인력과 물력을 동원해 책을 간행하고 보급하는 데 힘쓴 것은 지식과 정보를 국가가 통제하려는 목적이기도 했다. 그래서 출판 사업 자체가 통치 수단이었던 셈이다. 조선 초기에 유교 사상을 백성들에게 널리 퍼뜨리고자 펴낸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반대로 유교 이념과 맞부딪친 천주교 관련 서적은 이단시해 불태웠다. 그토록 책에 정성을 쏟았던 조선 조정이었지만, 국가에 위협이 되는 책이라고 판단하면 가차 없이 없앴던 것이다. 곧 서점이 없다는 얘기는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발간할 수 없게 정부가 그 이념과 정책에 위배되는 것을 통제했고, 그래서 이단이나 민간이 요구하는 오락물과 같은 서적은 애초부터 발행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발간되어도 유통할 수 없게 통제했다고 할 수 있다.⁷⁾

그렇지만,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조선 후기가 되면 지방과 민간에서 다양한 서적이 개인적인 출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업출판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당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방각본 상업출판은 많은 분량의 책자가 유통되고 소비되었지만, 그 당시의 출판 경로, 유통망과 출판시장의 규모에 대한 사료는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조선 후기 출판 시장의 변화에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한글출판을 통한 지식 정보의 확대이다. 하지만 이 한글본 출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에 한글이나 상업활동은 후대에 가치있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⁸⁾ 그런데 한글 출판을 통한 지식 정보의 저변 확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로 천주교를 들 수 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념 체계를 다른 이에게 전파하기 마련이니,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자연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전파는 이와 같은 조선 후기 출판과 서적 유통에 힘입거나 반대로 조정 중심의 출판 경향을 바꾸는데 기여했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

7) 조선후기 출판과 관련해서는 강명관,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조선의 책과 지식은 조선사회와 어떻게 만나고 헤어졌을까?』, 천년의상상, 2014. 이재정, 『조선출판주식회사: 조선은 왜 인력과 물력을 동원하여 출판을 독점했을까?』, 안티쿠스, 2008

8) 정병설, 「조선후기 한글 출판 성행의 매체사적 의미」, 『진단학보』 106호, 2008

서양 선교사들의 출판활동은 학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조선말기 방각본 사업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방각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많진 않지만, 서양 선교사들은 기독교의 전파를 위해 조선인들의 언어생활과 그 당시의 출판문화를 깊이 파악했으며, 기독교 서적을 유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다. 특히 선교사들이 주목한 점은 언문서적 시장의 특징과 언문의 언어적 위상이었는데, 그들이 남긴 사료를 보면 방각본 상업출판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선교사들은 결국 언문서적 출판시장을 의식하며 서민층의 독서문화를 탐구했는데, 그 결과 그들이 기대했던 이상의 출판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선교사들의 출판 활동이 그다지 주목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남긴 사료들은 조선후기와 일제초기의 방각본 상업출판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⁹⁾ 또 그리스도교 성경과 교리서의 출판 및 보급은 넓은 의미에서 서학을 조선의 민간 사회에 전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한글교리서의 출현은 천주교 운동의 성격에 있어서도 주요한 전환점을 제공해 주었다. 당시의 지식청년들은 한문서학서의 수용을 통해서 이를 ‘西學’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일종의 新文化受容運動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글 서학서는 독자층의 변동을 가져왔고, 서학은 일종의 民衆宗教運動으로 전개되어 나가게 되었다. 즉, 한글 서학서의 출현은 천주교 서적이 인민들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천주교 신앙이 종교의 차원에서 실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9세기 조선천주교회에서 서학서를 대량으로 간행하게 된 계기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서울에 인쇄소가 설립된 이후였다.¹⁰⁾

제한적이지만 이상과 같이 조선후기의 조정과 민간 출판의 상황을 바탕으로 개화기 이후 서학이 어떻게 수용되고 또 보급되는지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곧 1880년대 이후 정부에서 세운 학부와 번역관 등의 신학문 수용과 이를 위한 인재양성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여기서 발행되는 출판물 또 서양 선교사들을 비롯하여 신지식인 집단이 경영한 출판사 그리고 회동서관과 같이 토착자

9)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마이클 김, 「서양선교사 출판운동으로 본 조선후기와 일제초기의 상업출판과 언문의 위상」, 『열상고전연구』 제31집, 2010. 마이클 김, 「서양인들이 본 조선후기와 일제초기 출판문화의 모습-대중소설의 수용과 유통문제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19집, 2004

10) 조광, 「朝鮮後期 西學書의 受容과 普及」, 『민족문화연구』 제44호, 2006

동북아해역 근대 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사 검토
-서학(西學)의 수용과 한국 근대지(近代知)의 형성을 중심으로

본가가 경영한 출판사 등 다양한 인쇄출판업의 상황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김민환은 개화기 서적출판에 관한 기존 연구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¹¹⁾ 현영아는 우리나라에서 책의 근대 인쇄는 고종17년(1880), 일본 요코하마에서 崔智赫의 글자를 字本으로 주조한 한글 新鉛活字로 찍은 韓佛字典이 효시라 하겠으나, 정부에서 고종 20년(1883) 처음으로 統理衙門에 박문국을 설치하고 新活字를 일본에서 도입하여 漢城旬報를 찍어 발행한 것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근대 인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鉛活字에 의한 근대식 출판은 1883년 박문국의 설립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박문국은 갑신정변으로 인해 기구한 운명이 되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따라서 官에서의 출판도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별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관에서의 본격적인 출판은 1895년 학부령의 반포 이후 학부 편집국에서 교과서를 출판하면서부터이다. 이후부터 한일합방이 되던 1910년 시기의 출판물들은 애국계몽서, 역사지리, 국어국문, 사회과학, 전기류, 신소설, 교과서, 종교서, 국학관계 등으로 세분하여 서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책의 근대 인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다.¹²⁾

이처럼 개화기 조선의 출판 상황과 관련해서는 출판의 주체, 지방 출판의 상황, 교과서를 비롯한 출판물의 종류, 잡지 발간의 현황 및 소설류의 상업출판의 형태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개항이후 1910년 이전까지 조선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근대지식의 보급과 상업출판이 활기를 띠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상적 측면

야마무로 신이치는, 조선에서 서학의 수용과정은 17세기 초반 마테오 리치 등의

11) 김민환, 「개화기 출판의 목적 연구-생산 주체별 차이에 관하여」, 『언론정보연구』47(2), 2010, 이 밖에 관련 연구로는 김봉희, 「개화기 지식보급의 확대와 출판인쇄의 기능」, 『성곡논총』27(3), 1996, 박용찬, 「근대계몽기 재전당서포와 광문사의 출판과 그 특징 연구」, 『영남학』 제61호, 2017, 6 서태열, 「개화기 학부발간 지리서적의 출판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분석」, 『사회과교육』 52권 1호, 2013 이종국, 「개화기 출판 활동의 한 징험-회동서관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출판연구』 통권 제49호, 2005. 배정상, 「개화기 서포의 소설 출판과 상품화 전략-신문계 소설 광고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2호, 2016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12) 현영아, 「韓國의 近代 西洋印刷術 流入의 影響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36집, 2007

천주교 서학서에 의해 시작하는 것과 1885년 이후 미국인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의 포교에 의해 들어오는 것 두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고 했다.¹³⁾ 또 그는 조선의 서학 수용과 관련해서 1801년부터 80년에 걸친 기간 조선의 지식정보 회로는 박규수와 오경석 등의 베이징 경유 회로 뿐으로, 즉 당시 고용 외국인 교사와 고문, 선교사를 통하여 구미의 사회과학 사상을 배우는 회로가 일본, 중국에서 전개된 것에 비해 대단히 제한적이었다고 적었다.¹⁴⁾

사상사적 측면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근대 학문의 성립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다. 아마무로 신이치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에서의 서학 수용은 개화기 전까지는 상당 부분 기독교의 전래와 관계가 깊다. 최근에 나온 김선희, 『서학, 조선 유학이 만난 낯선 거울: 서학의 유입과 조선 후기의 지적 변동』(모시는 사람들, 2018)의 경우는 제목에서 이러한 측면의 연구를 가장 잘 보여준다. 즉 사상사적 측면에서 연구는 주로 유학과 서학(서교)의 대립이란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그 선구적인 작업은 강제언에 의해 시작되었다. 제일 한국근대사학자인 강제언은 한국 근대화에 대해서 “일본과 조선의 근대화에서 결정적 차이는 일본이 서양의 종교와 학술을 분리하고 그 학술(난학)만 수용한 것”인데, “조선의 비극은 이웃나라 일본이 이처럼 서양의 종교와 학술을 분리하여 양학을 수용함으로써 서양관에 일대 변혁을 이룬 시기에 1801년 신유교난으로 시작된 천주교 탄압의 와중에 反西敎에서 反西洋으로 전환하고, ‘鎖國攘夷’의 틀 속에 틀어박혀 아시아 최후의 ‘은자의 나라’가 되고 말았던 데 있다.”¹⁵⁾고 적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서양과의 첫 번째 조약인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비롯해 영국 및 독일과 조선의 수호를 중개한 것은 청의 이홍장이 파견한 마건충 등이었다는 사실은 외교관도 없고 서양어를 구사할 수 없는 통역관도 없었던 당시 조선의 상황을 나타낸다. 또 18세기말까지 서양학술서 23종, 천주교 및 서양 윤리서 13종이 조선에 수용되었는데, 이 책들은 모두 선교사들이 선택하고 또 원어가 아니라 한문으로 쓴 책의 범위 내에 있었고, 또 1801년부터 1876년 개항에 이르는 약 70년 서양에 대한 지식의 공백시기를 거친 뒤 갑자기 서양 상인

13) 아마무로 신이치,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소명출판, 2018, 293면.

14) 아마무로 신이치, 앞의 책

15) 강제언, 『서양과 조선』, 학고재, 1998

동북아해역 근대 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사 검토
-서학(西學)의 수용과 한국 근대지(近代知)의 형성을 중심으로

들을 맞게 되었던 것은 전혀 서구를 맞이할 준비가 덜 된 조선 후기의 모습이었다.¹⁶⁾ 이 모두 서학이 아닌 서교에 치우친 수용의 결과였던 것이다.

조광은 한국의 기독교 전파에 대해 직접적인 서양 선교사의 선교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18세기초 중국에서의 한역서학서적의 보급에 의해 1784년 자발적인 교회의 설립으로 나아가는 형태였다고 했다. 1787년 한문 천주교 서적이 한글로 번역되기 시작하여 『성경직해』(번역), 『주교요지』(정약종의 저술)가 나왔고, 1836년 이후 입국한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의해 천주교 서적의 번역과 간행이 계속 이어졌다. 서학서의 필사와 인쇄에 대해서는 이미 1791년 무렵에 서학서가 인쇄 간행되었다는 증거나 소문이 있었다. 19세기 대략 1863년 선교사들이 서울에 인쇄소 설치를 했다고 했다.¹⁷⁾ 이러한 사실은 앞의 제도적 측면에서 언급했다.

종래 관련 연구의 상당수는 천주교 교리서 등의 종교 관련 서적의 수용과 번역 그리고 국내에서의 전파와 보급에 대한 것 그리고 북학파의 서학 수용과 인식 등이었는데, 예를 들어, 이경혜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중국에서의 천주교는 프란체스코회의 선교사 몬테코르비노(Monte Corbino)에 의해 1294년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1368년 원나라가 망하고 명왕조가 들어서면서 중국인 신도들은 자취를 감춘다. 몬테코르비노가 선교하여 개종시켰던 중국인 신도 대부분이 비한족(몽골인, 알라니인, 터키인)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 격동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국 선교의 맥이 완전히 끊어졌다가 16세기 말에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다시 이어졌다. 그 선교사들이 한문으로 번역하거나 저술한 서학서(西學書, 곧 漢譯西學書와 漢文西學書)가 조선과 서양문화의 만남의 시작이다. 그러나 서양문화와의 직접적인 만남은 1836년 파리외방전교회(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하여 가톨릭을 전파하면서부터이다. 외방전교회의 주된 목적은 선교이었으나 파리외방전교회와 조선의 만남은 선교 외에도 우리에게 괄목할만한 문화적 유산을 남겼는데, 프랑스에서는 한국학의 초석을 놓았다. 파리는 선교사들이 보내는 보고서가 모여드는 예수회와 파리외방전교회의 본부가 있었으므로 당시 유럽에서 한국학이 가장 활발한 나라이었음은 당연하다. 파리외방전교회는 전통신학에 역행하

16) 강재연, 「근대의 기점에서 본 한국과 일본-비교사상사적 고찰-」, 『민족문화논총』, Vol 7, 1986

17) 조광, 앞의 논문

는 근대화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므로 예수회나 도미니코회에 비해 복지사업이나 교육사업에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 또한 일제시대에는 정·교분리의 원칙하에 선교사들이 조선총독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족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현실참여 금지에 대해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외방전교회는 오직 선교활동에 필요하거나 교리습득과 관련되는 것, 즉 조선어연구와 교회서적의 출판 그리고 신학교육 등에 치중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신학교를 설립하고, 언문교리서를 번역했으며, 한불자전을 간행(1880)했다.¹⁸⁾

한편 사상적 측면에서 금장태는 18세기 말부터 조선말기의 마지막 100년 동안 ‘유교’와 ‘서학’의 교류양상을 보면,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조화와 상호보완의 기회를 사실상 잃고 말았던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수회의 보유론적 적용정책이 포기되고 제사를 금지하며 천주교 교리의 독선적 고유성이 강화되면서 ‘조선서학’의 선교정책은 유교사회와 대화의 통로를 잃고 정면의 충돌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충돌하면서 유교사회는 ‘서학’에서 받아들이고 배워야 할 근대적 사유나 세계관의 확장을 얻어내지 못하고 폐쇄적 쇄국정책으로 자멸의 길을 갔던 것이고, ‘서학’은 조선사회와 문화전통 속에 뿌리를 내리는 토착화의 기회를 상실하고 외래 종교로서 외세의 후광에 의존해왔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수회 선교사들이 천주교신앙과 서양과학기술을 두 날개로 중국의 하늘 위에 날아올랐다면, 조선의 ‘서학’의 천주교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서양과학에 대한 관심도 내버렸고 조선사회와 충돌하면서 땅속으로 파고들어 백년을 버텨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조선서학’의 천주교 신앙은 초기의 중심세력이었던 유교지식인들이 이탈하고 서민대중 속으로 내려가면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논리나 대책에 관심이 없이 개인적 구원이나 내세신앙에 기울어지면서, 사회의식이나 역사의식을 잃어버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학’이 던져준 문제에 자극을 받은 19세기 말에 ‘동학’·‘증산교’ 등 자생적 민중종교에서 사회변혁의 길을 찾으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이에 비해 ‘조선서학’은 사회적 모순의 해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신앙의 자유

18) 이경혜, 「파리와방전교회와 조선의 만남」, 『人文科學研究』 제17집, 2011

동북아해역 근대 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사 검토
-서학(西學)의 수용과 한국 근대지(近代知)의 형성을 중심으로

를 위해 무리한 방법을 추구하다가 반국가적 성격을 드러내고, 외세의 내용세력으로 의심을 받았던 사실을 재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¹⁹⁾

이처럼 서학 그 가운데 서교의 수용과 조선 유학자들의 대응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서학에서 종교나 사상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하느라 다른 학문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늦어졌던 점이 조선의 근대화가 뒤쳐진 원인이라고 한 강재언의 지적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하지만 서교 즉 기독교를 중심으로 전개된 서교와의 만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 근대사를 규정하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서적의 보급과 민간 출판의 성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프랑스의 한국학 태동은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이고, 또 이들에 의해 한국의 외래어사전이 처음 나온 것도 그렇다. 그런 점에서 조선을 비롯해 동아시아의 선교 네트워크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그리스도교 신자인 학자에게 맡겨둘 일만은 아니다.

Ⅲ. 향후 연구 전망: 동북아해역에서의 서학 유통

1. 19세기초 중국과 일본의 서학 상황

일본에서 서양정보의 수용은 이미 에도시대에 내향한 네덜란드선이나 중국선(주로 강소성과 절강성²⁰⁾에서 출항하는 배)이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和蘭風說書’, ‘唐風說書’에서 비롯되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어느 쪽이나 16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끊어진 것도 있었으나, 각각 막부 말기인 1859년과 1862년까지 계속되었다. 이외에 무역상품으로서의 도서도 훌륭한 정보원이었는데, 에도시대 약 만권의 네덜란드서적이 수용되었다. 이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수용된 마테오리치 등의 한역서양서를 난학이 압도해버리는 현상을 초래했다. 게다가 당

19) 금장태, 「조선서학의 전개와 과제」, 『신학과 철학』 제20호, 2012

20) 청초부터 일관되게 중국에서 출판이 중심이었고, 한문 서적에 대한 일본의 수요가 높을 때 중국 배에 의한 무역체제가 수립되었다.

시 청 옹정제는 금교령을 내렸기 때문에 정보선진국의 지위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 다시 정보선진국으로서의 중국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1840년의 아편전쟁 이후다.

19세기 중국 西學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의 지식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서학을 형성해나간 주체들이 개별이든 조직이든 하나의 명확한 목표 내지 목표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정한 그룹 내지 조직과 연계하여 활동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 차원에서의 활동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과 출판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 활동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에는 19세기 중국의 西學이 저술, 번역에서 출판에 이르기까지 서구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형성되었다는 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19세기 중국의 서학보급은 선교사들의 선교전략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었다.

19세기 중국에서의 서학보급과 관련하여 비교적 주목할 것은 다음과 같은 교육, 출판, 조직 활동을 들 수 있다. 즉 아편전쟁 이전인 1836년의 “모리슨 교육회(Morrison Educational Society)”와 1834년의 “중국 실용지식 보급회(Society for the Diffusion of Useful Knowledge in China)”를 비롯하여, 1844년의 “墨海書館(London Missionary Society Press)”, 그리고 1876년의 “格致書院”, 1877년 “益智書會(School and Textbook Series Committee, 1890년 Educational Association of China로 영문명 개칭)와 1887년 “同文書會(The Society for the Diffusion of Christian and General Knowledge among the Chinese, 1894년 廣學會로 중국명 개칭)” 등이 바로 19세기 중국에서 서학 보급에 종사했던 대표적인 단체나 조직들이다.

1857년에 윌리엄슨(A. Williamson, 韋廉臣) 등이 상하이에서 최초의 근대적 중문 종합잡지인 『六合叢談』(Shanghai Serial)을 발간하였다. 墨海書館의 출판서적 내용을 보면 여전히 종교 내용이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1844년부터 1860년까지 대략 33종의 非종교 서학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六合叢談』은 『東西洋每月統紀傳』을 이어 ‘文’을 통한 중서소통과 중국에 서학의 보급, 국민 지식계몽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비종교 서학의 소개와 보급은 주로 1870년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1868년 강남제조국(江南製造局) 산하에 부설한 번역관(翻譯館)과 후

동북아해역 근대 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사 검토
-서학(西學)의 수용과 한국 근대지(近代知)의 형성을 중심으로

리어(J. Fryer) 등이 『中西聞見錄』(1872-1875) 폐간을 대신하여 1876년 창간한 『格致匯編』(1876-1892), 그리고 익지서회(益智書會)(1877) 등이다. 중국에 소개·번역되는 서학의 내용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알렌(Y.J. Allen)이 주편한 『萬國公報』와 ‘同文書會(廣學會)’이다.²¹⁾

여기서 묵해서관의 경우는 제1차 아편전쟁 직후부터 제2차 아편전쟁 종결까지 대략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저술한 선교사나 ‘낭인’수재들의 활약에 의해 단순히 한역양서를 간행하는 서양정보발신지로서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살아 있는’ 서양 창구로서도 크게 그 역할을 다했다. 굳이 ‘傳道’의 요소를 제외하고 말하자면, 아직 관영 양학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의 중국에서 그 존재는 에도막부의 ‘양학소(洋學所)²²⁾(1855년 설립)와 비슷할 수 있다.

덧붙여 말하면 중국의 ‘양학소’에 해당하는 경사동문관(京師同文館)이나 상하이광방언관(上海廣方言館), 또 강남제조국번역관은 모두 1860년대에 설립된 것으로 묵해서관보다는 20년 가까이 늦다. 그리고 후술하지만 묵해서관의 영향력은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국내 이상으로 일본에도 미쳐, 막부말기의 일본인들에게 적지 않은 ‘정보’의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 서적이 1850년대 중반부터 ‘교통’네트워크에 편승해 전부 일본에 선편으로 들어와 일본지식인들을 ‘계몽’하고 일본 ‘개국’을 촉진했다는 점이다. 막부말기에 한역양서의 일본 전래를 고찰할 때, 먼저 부딪히는 것은 도대체 이 서적들이 어떤 루트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종류와 수량으로 일본에 들어왔는 가라는 문제이다. 이것은 만약 종래의 당인무역(唐人貿易)²³⁾에 의한 수입이었더라면, 예를 들어 ‘재래서목(齎來書目)’, ‘서적원장(書籍元帳)’, ‘낙찰장(落札帳)’ 등과 같은 나가사키회소(會所)²⁴⁾의 수입 업무에 관련한 리스트가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페리 내항 이후는 당선 이외의 루트도 생겨나고, 특히 1858년의 ‘안정개국(安政開國)’에 의하여 일종의 자유무역체제에 들어

21) 차태근, 「19세기말 중국의 西學과 이데올로기 - '廣學會'와 『萬國公報』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33호, 2005

22) 에도막부 때 외교문서 및 수입서적의 번역을 주된 업무로 한 부서.

23) 에도시대에 일본에 온 중국인과의 무역.

24) 에도시대 나가사키에 설치된 무역기관. 현재의 나가사키세관의 전신이다.

가자 우편선을 포함하는 다양한 종류의 배가 빈번하게 중국과 일본을 왕래하게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종래처럼 그것을 특정할 수는 없다. 다만 굳이 그 루트를 분류하자면, 예를 들어 열강의 군함에 의한 운송, 중일의 상인에 의한 수입, 일본에 들어온 선교사에 의한 유입의 3가지를 우선 생각할 수 있다.²⁵⁾

〈선교사에 의한 한역양서의 막부말기 일본에서의 번역상황〉

서명(저자, 출판사, 출판년)	번역자, 출판사, 출판년
『수학계몽』(와일리, 목해서관, 1853년)	막부육군소(幕府陸軍所)화본(和本). 안정연간(安政年間)
『항해금침(航海金針)』(맥고완瑪高溫, 닝보화화성경서방(華花聖經書房), 1853년)	에도오카다야(江戸岡田屋), 1857년
『지리전지』(뮤어헤드, 목해서관, 1853~54년)	시오노야 토인(塩谷宕陰)번역, 상쾌루(爽快樓), 1858~59년
『하이관진』(메드허스트, 홍콩영화서원, 1853년)	복사본
『전체신론』(홉슨, 목해서관 재판, 1855년)	후시미(伏見)오치장판(越智蔵版), 이서당(二書堂) 발행, 1857년
『박물신론』(홉슨, 목해서관 재판, 1855년)	개성소(開成所)번역, 에도노조관(江戸老翁館), 문구년간(文久年間)
『지구실략』(웨이, 닝보화화성경서방, 1856년)	미즈구리 진보(築作院甫)번역, 에도노조관, 1860년
『대영국지』(뮤어헤드, 목해서관, 1856년)	아오키 슈스케(青木周彌)해석, 장문온지사(長門温知社), 1861년
『지환계몽』(레그, 홍콩영화서원출판, 1856년)	야나가와 슌신(柳川春三)번역, 에도개물사(江戸開物社), 1866년
『홍콩선두화가지(香港船頭貨價紙)』(일본판은 '홍콩신문', Daily press사, 1857년)	개성소판관(開成所官板), 문구년간
『서의약론』(홉슨, 인제의관, 1857년)	미야케 곤사이(三宅良齋), 에도노조관, 1858년
『육합총담』(와일리, 목해서관, 1857년)	번서조소판관(蕃書調所官板), 에도노조관, 1860~62년
『중학천설』(와일리, 목해서관, 1858년)	요도카케(淀陰) 아라이(新井) 모 방점, 요도히(淀陽) 기무리(木村) 모 번역간행, 1860년
『내과신설』(홉슨, 인제의관, 1858년)	미야케 곤사이(三宅良齋), 에도노조관, 1859년
『부영신설』(홉슨, 인제의관, 1858년)	미야케 곤사이, 에도노조관, 1859년
『중외신보』(인슬리, 닝보화화성경서방, 1854년)	번서조소판관, 에도노조관, 1860년

25) 劉建輝, 『魔都上海』, 筑摩書房, 2010(근간, 부경대HK+사업단, 소명출판, 2019)

동북아해역 근대 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사 검토
-서학(西學)의 수용과 한국 근대지(近代知)의 형성을 중심으로

서명(저자, 출판사, 출판년)	번역자, 출판사, 출판년
『대수학』(와일리, 목해서관, 1859년)	스루가(駿河) 츠카모토 아키다케(塚本明毅)교정, 시즈오카집학소(静岡集學所), 1872년
『담천』(와일리, 목해서관, 1859년)	후쿠다 이즈미(福田泉)번역, 오사카카와치야(大坂河内屋), 1861년
『식물학』(윌리엄슨, 목해서관, 1859년)	기무라 카헤이(木村嘉平), 1867년
『연방지략』(브리지먼, 목해서관, 1861년)	미즈구리 겐보번역, 에도노조관, 1864년
『중외잡지』(맥고완麥嘉湖, 상하이, 1862년)	개성서관, 에도노조관, 1864년
『만국공법』(마틴, 북경승실관, 1864년)	개성소훈점(訓點)서관, 에도노조관발행, 1865년
『격물입문』(마틴, 북경동문관, 1868년)	모토야마 겐키치(本山漸吉)번역, 명청관(明清館), 1869년

막부말기 일본 내에서의 한역양서는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의 중국인 저술 서적도 전래 보급되어 일본의 난학을 능가했다. 또 문구신문(文久新聞) 4종의 ‘한문잡지’ 즉, 『관관 육합총담』은 15권, 『관관 중외신문』은 12권, 『관관 홍콩신문』은 2권, 『관관 중외잡지』는 7권이 보급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과 개항이후 중국을 통한 서학 수용의 방식도 변화했다.

2. 19세기 중엽 상하이 네트워크와 조선

조선은 주로 베이징을 통해 영선사 등의 중국사신을 통해 서양 서적을 수용했다. 1881년에 김윤식 등이 베이징동문관을 시찰하고 總理交涉通商事務衙門協弁으로서 고용된 독일인 뮐렌도르프의 제안에 의해 同文學이 설립될 때까지 약 80년간 조선은 서학과 서교에 대한 무시 그리고 배외사상으로 구미의 학술과 담을 쌓고 있었다. 물론 이런 쇄국정책 하에서도 간헐적으로 서학을 수용하였다. 그것은 박규수와 오경석 등의 베이징 경유라는 극히 제한된 정보회로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1853년 오경석 등에 의해 한역서학서가 수용되고 실질적으로 구미의 지식의 도입이 수면 아래서 진행되어 西法, 西藝에 의해 開化自修할 수밖에 없다는 의론이 일어나기도 했다.²⁶⁾ 또 1844년에 위원의 『해국도지』초판본이 나왔는데, 조선에는 다음 해인

26) 야마무로 신이치, 앞의 책, 300-302면.

1845년에 전래되었다. 그런데 그 경로를 보면 1844년 10월 26일 兼謝恩冬至使를 배 이징으로 파견했는데, 다음 해 3월 28일 겸사은동지사의 일행 중에서 正使 興完君, 李戩應, 副使 예조판서 權大肯이 위원의 『해국도지』 50권을 가지고 귀국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베이징과의 육로를 통한 전래였다.²⁷⁾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상하이 지식네트워크’에 의해 탄생된 책의 전파라고 할 수도 있다.²⁸⁾ 하지만 그 수는 대단히 적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1876년 일본에 의해 개항이 되고 난 뒤에는 중국을 통한 서양학문의 전래보다는 일본이나 서양인을 통한 직접적인 전래가 빈번해졌다고 볼 수 있다.²⁹⁾

한편 상하이와 조선 사이의 교류와 유통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882년 壬午 軍亂을 거치며 양국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중에, 양국 권력의 협의 하에 조선과 상해 간을 왕래하는 기선 항로가 개설되었던 것은 그러한 관심의 반영이었다. 양국은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第7項에 의거 上海輪船招商局 운선의 정기 운항 방침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1883년 11월 마침내 朝鮮統理各國事務衙門과 상해운선초상국간에 기선의 정기 항운에 대한 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이에 양국을 왕래하는 최초의 기선이 11월 13일 상해를 출발해 연대를 경유, 11월 18일 인천에 도착했다. 양자는 이후 경유항, 횡수를 증설하는 등 항로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운선초상국의 기선은 상인들의 정상적인 운송 수요가 안정적으로 담보되지 않는 한 지속되기 어려웠다. 1884년 7월 朝鮮交涉事務 金炳始는 청 총판조선상무 陳樹棠에 기항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운선초상국의 기항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끝내 중단되었다. 운선초상국의 항운은 유지되지 못했지만, 이후 조선-상해 간의 항로는 점차 확대되어갔다. 특히 러시아, 일본 해운회사의 주도 하에 구축된 항로들이 활발히 운영되었다. 1899년 러시아 東淸鐵道株式會社 汽船部는 본래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과 나가사키간 정기항로를 운영했는데, 동아시아 지역으로 항로

27) 진아니, 『19세기 魏源의 『海國圖志』 판본비교와 조선 전래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5, 26면.

28) 어윤중(魚允中), 『종정연표(從政年表) 연표』, 1881년 3월 20일~10월 10일. 어윤중이 일본과 상해를 왕래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배는 모두 기선(汽船)이었다.

29) 강미정·김경남, 「근대 계몽기 한국에서의 중국 번역 서학서 수용 양상과 의의」, 『동학어문학』 71, 2017

동북아해역 근대 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사 검토
-서학(西學)의 수용과 한국 근대지(近代知)의 형성을 중심으로

를 확장하면서 1896년 11월 그 항로를 연장해 인천을 종착지로 하는 정기항로를 개설했다. 이후 상해-블라디보스톡, 홍콩-블라디보스톡 항로를 확장하면서 그 경유지로서 인천에의 기항 회수를 늘렸다. 또 日本郵船株式會社는 북중국 항로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경유해 상해로 향하는 항로들을 개설했다. 이렇게 19세기 말 한반도에서 상해로 직행하는 운송네트워크가 구축되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상해로 향하는 조선 관료, 상인, 유학생 등이 점차 늘어났다. 조선은 1884년, 1886년, 1889년, 1893년 조선의 기근 구제를 위해 관리를 파견해 상해로부터 미국을 수입했다. 또한 군비 강화 과정에서 상해로부터 무기, 기기 구매하기도 했다. 또한 서구 세계에 관한 정보를 흡수하기 위해 책과 신문 등을 구입하는 등의 활동도 전개했다. 조선 관리, 특히 개화당 인사들에게 있어서 개항 이후 경제, 문화 등 측면에서 중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상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와의 연결을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상해를 왕래한 조선 관리로는 민영익, 조휘연(趙羲淵), 김학익(金鶴翊), 오경연(吳慶然), 김재로(金載老), 최석영(崔錫永)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민영익은 1885년 이후 상해에 정착했다. 윤치호는 1884년 갑신정변 후 상해로 와서 中西學校에서 4년 유학했다. 해운망을 따라 무역 활동하는 상인들도 꽤 있었다.

1910년대 이전 한인의 상해 진출은 경제, 문화의 선진도시로서 이 도시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그 교류가 넓혀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 도시에 장기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많지 않았다. 1905년 상해 공공조계에 거주했던 한인은 8명에 불과했다. 일본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1910년까지 상해 거주 한인은 50명에 미치지 않았다.

물론 상해 한인 가운데 다수의 노동자, 직원 등이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요인에 의한 이주가 중심이 되었던 면이 있었다. 특히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의 이주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³⁰⁾

조선 후기에서 개화기에 이르는 기간동안 상하이와 조선의 직접적인 연결은 교

30) 김승욱, 「20세기 초반 韓人의 上海 인식 - 공간 인식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54, 2012. 조강희, 「近代 동아시아에서 朝鮮産 輸出 海産物의 流通과 域內 商人의 競争-1889~1931년을 中心으로-」, 『사회과학교육』 제18집, 2015

통망에서도 교역의 면에서도 또 인적 교류의 면에서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관련된 자료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간접적인 우회로를 통한 교류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조선과 일본 사이의 서적 교류

이 시기 일본과는 서적 교류가 전개되었는지는 수신사를 통해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을 듯하다. 1876년 <일동기유日東記遊>·<수신사일기>를 쓴 수신사 김기수의 일본 방문과 1880년 김홍집이 일본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황준센(黃遵憲)의 『조선책략』을 보았던 사정 등을 볼 때 당시 일본을 통한 서학의 수용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윤중의 행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81년 일본 국정시찰단인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 60명을 일본에 파견할 때 조사(朝士)의 한 사람으로 선발된 어윤중은 박정양(朴定陽)·홍영식(洪英植) 등과 함께 이 시찰단의 중심 인물로서, 재정·경제 부문을 담당했다.

어윤중은 1881년 1월 동래암행어사의 발령을 받고 그의 수행원으로 유길준·유정수(柳定秀)·윤치호·김양한(金亮漢) 등과 통역·하인 등을 거느리고 4월 부산을 출항하여 나가사키·오사카·교토·고베·요코하마를 거쳐 도쿄에 도착했다. 이들은 약 3개월간 일본의 메이지유신의 시설·문물·제도 등 모든 부분을 상세히 시찰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했고, 다른 조사들은 이 해 7월 귀국했다. 그러나 어윤중은 자기의 수행원인 유길준과 윤치호를 일본에서 더 공부하도록 남겨둔 뒤, 다른 수행원만 거느리고 한달 더 일본에 체류했다가 청나라 톈진에 가 있는 영선사 김윤식(金允植)과 합류하기 위해 청나라로 갔다.

이 해 9월 청나라에 도착한 어윤중은 영선사 김윤식과 공학도를 만나보고 중국의 개화정책을 견문.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 등과 회담한 다음 이 해 12월 귀국했다. 어윤중은 1년간의 일본·중국 시찰의 복명서를 국왕에게 제출했는데, 여기서 어윤중은 견문한 사실과 조선의 개화정책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여, 초기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1882년 귀국한 지 두 달 뒤에 문의관(問議官)에 임명되어 청나라에 다시 파견되었는데, 청나라의 이홍장이 조미수호조약의 체결을 강력히

동북아해역 근대 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사 검토
-서학(西學)의 수용과 한국 근대지(近代知)의 형성을 중심으로

권고하고 그 초안까지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조선조정에서 그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어윤중은 이해 4월에 청나라에서 조미통상조약 문제를 심의하고 조미수호조규에 합의했고, 영국대표와 만나 조영수호조규문제를 독일대표와 만나 조독수호조규문제를 협의했다.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양호한 조미 관계를 이어갔고, 1884년 이후 알렌과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한 포교활동이 전개되었다. 의료와 교육활동에서 시작(광혜원, 야소교학당, 배재학당,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설립), 1881년 일본유학, 1883년 동문학, 1886년 관립학교 육영공원(만국공법 강의)이 설립되었다.

이때 이홍장 등이 이미 초안해 놓은 불평등조약인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에 조인했다. 종래 청나라에 대하여 비교적 호의를 가지고 있던 어윤중이 그 뒤 청나라에 대해 냉담하게 된 것은 이때 청나라가 주장한 중주권의 부당성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뒤늦게 서양문물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한성순보』(1883), 『만국정표』(1887), 『서유견문』(1895) 등 그리고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전도 및 근대식 교육 기관 설립되었다. 이제까지 일본 파견 수신사들의 행적과 그들의 일본에 대한 견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다. 서학의 수용을 일본 경유라는 시각에서 한층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IV. 나가며: 연구과제

지금까지 한국에서 근대학문의 수립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그것을 동아시아에서 서구 지식의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1800년 중반이후 상하이를 기점으로 한 소위 ‘상하이 네트워크(교역/지식 등)’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는 출판업과 유통업이라는 상업적 관점에서 지식의 유통을 살피는 차원이기도 하다. 상하이를 직접 방문하고 거기서 상하이의 지식네트워크를 비롯한 새로운 문물을 목격하고 직접 조선으로 그것을 수용한 경우는 없는가 하는 것은 이제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해역의 교역네트워크(특히 출판네트워크) 상에서 지식의 유통을 살피는 것이다.

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조선의 서학 수용에 있어 일본 루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한 문제로서 수신사 등의 일본 견문록을 통한 서적 교류의 양상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동북아해역에서의 선교네트워크에 대한 것이다. 예수회를 비롯한 다양한 카톨릭 선교그룹의 동아시아 선교전략 그리고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전래된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탐색한다. 이 선교활동 안에서 이루어진 근대 지식의 전파와 수용 그리고 번역과 출판 등의 사업을 총체적으로 살핀다. 예를 들어, 초교파적으로 서구 개신교 문서출판을 담당했던 기관 RTS(Religious Tract Society)의 활동범위 및 조선의 출판시장 형성과의 연관 등을 탐문해야 한다.³¹⁾

피에르 엠마뉼 후는 천주교의 조선 도입은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국제 정세의 상황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일본에 파견된 서양 선교사들은 한반도를 통해 중국 북부로 가는 길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반대로 17세기 중반부터는 중국에 파견된 예수회 선교사들이 천주교가 심하게 박해받던 일본으로 가는 길을 중국과 조선을 통해 열고자 하였다.³²⁾ 이런 해석에서 본다면, 동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의 전도는 서양 상인들이 동아시아 시장 정복이라는 현상에 비견될만한 사항이다. 또 동서문화 교류사에서도 선교사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연구논문

정병설, 「조선후기 한글 출판 성행의 매체사적 의미」, 『진단학보』 106호, 2008.

31) 이고은, 「19세기 동북아 해양로를 통한 서구 개신교 선교사들의 근대지식 유통」, 제1차 부경대 HK+사업단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18, 6

32) 피에르 엠마뉼 후, 「조선 架橋의 재발견: 16-19세기 천주교 선교사의 조선 진출 전략에 대한 기초연구」, 『淵民學志』 제16집, 2011

동북아해역 근대 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사 검토
-서학(西學)의 수용과 한국 근대지(近代知)의 형성을 중심으로

허경진, 『조선의 증인들-정조의 르네상스를 만든 건 사대부가 아니라 '증인'이었다』,
알에이치코리아, 2015.

야마무로 신이치,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소명출판, 2018.

마이클 김, 「서양선교사 출판운동으로 본 조선후기와 일제초기의 상업출판과 언론
의 위상」, 『열상고전연구』 제31집, 2010.

마이클 김, 「서양인들이 본 조선후기와 일제초기 출판문화의 모습-대중소설의 수용
과 유통문제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19집,

조광, 「朝鮮後期 西學書의 受容과 普及」, 『민족문화연구』 제44호, 2006.

현영아, 「韓國의 近代 西洋印刷術 流入의 影響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36집,
2007.

강재연, 「근대의 기점에서 본 한국과 일본-비교사상사적 고찰-」, 『민족문화논총』,
Vol 7, 1986.

김승욱, 「20세기 초반 韓人의 上海 인식-공간 인식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
구』 54, 2012. 조강희, 「近代 동아시아에서 朝鮮産 輸出 海産物의 流通과 域
內 商人의 競爭-1889~1931年을 中心으로-」, 『사회과학교육』 제18집,
2015.

피에르 엠마뉘엘 후, 「조선 架橋의 재발견: 16-19세기 천주교 선교사의 조선 진출 전
략에 대한 기초연구」, 『淵民學志』 제16집, 2011.

진아니, 『19세기 魏源의 『海國圖志』 판본비교와 조선 전래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
사학위논문, 2015, 26면.

강미정·김경남, 「근대 계몽기 한국에서의 중국 번역 서학서 수용 양상과 의의」, 『동
악어문학』 71, 2017.

차태근, 「19세기말 중국의 西學과 이데올로기 - '廣學會'와 『萬國公報』를 중심으로」
, 『중국현대문학』 33호, 2005.

이경혜, 「파리의방전교회와 조선의 만남」, 『人文科學研究』 제17집, 2011 .

금장태, 「조선서학의 전개와 과제」, 『신학과 철학』 제20호, 2012.

김민환, 「개화기 출판의 목적 연구-생산 주체별 차이에 관하여」, 『언론정보연구』

47(2), 2010.

김봉희, 「개화기 지식보급의 확대와 출판인쇄의 기능」, 『성곡논총』27(3), 1996.

박용찬, 「근대계몽기 재전당서포와 광문사의 출판과 그 특징 연구」, 『영남학』제61호, 2017, 6.

서태열, 「개화기 학부발간 지리서적의 출판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분석」, 『사회과교육』 52권 1호, 2013.

이종국, 「개화기 출판 활동의 한 징검—회동서관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출판연구』 통권 제49호, 2005.

배정상, 「개화기 서포의 소설 출판과 상품화 전략-신문 게재 소설 광고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2호, 2016.

이민희, 「조선과 중국의 서적중개상과 서적 유통문화 연구」, 『東方學志』 141호, 2008.

신익철, 「연행록을 통해본 18세기 전반 한중 서적교류의 양상」, 『泰東古典研究』 25집, 2009.

정훈식, 「수신사행록과 근대전환기 일본지식의 재구성」, 『한국문학논총』 제56집, 2010.

정훈식, 「사행록의 역사적 전개와 일동기유」, 『열상고전연구』26집, 2007

정훈식 · 남송우, 「조선후기 일본지식의 생성과 통신사행록」, 『동양한문학연구』29집, 2009.

이효정, 「19세기 후반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을 통한 지식 · 문화 교류의 한 양상-『스에마츠 지로 필담록(末松二郎筆談)』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78집, 2018.

조항래, 「병자(1876)수신사행과 대일인식」, 『강좌 한일관계사』, 현음사, 1994.

하우봉, 「개항기 수신사행에 관한 일연구」, 『한일관계사연구』10집, 1999.

신용하, 「규장총목해제」, 『규장각』 4호, 1981 .

신용하, 「규장각도서의 변천과정에 대한 일연구」, 『규장각』 5호, 1981.

延甲洙, 「高宗 初中期(1864-1894) 政治變動과 奎章閣」, 『奎章閣』 17, 1994.

동북아해역 근대 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사 검토
-서학(西學)의 수용과 한국 근대지(近代知)의 형성을 중심으로

- 이태진, 『奎章閣 中國本 圖書와 集玉齋圖書』, 『민족문화논총』 16, 1996.
- 신경미, 『高宗年間(1863~1907) 서적 刊行 양상과 그 성격 -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HOMO MIGRANS』 16, 2017.
- 민희수, 『규장각 소장본으로 본 개항기 서양 국제법 서적의 수입과 간행』, 『奎章閣』, 47권, 2015.
- 장영숙, 『『內下冊子目錄』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관련 서적 수집 실상과 영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권, 2009.
- 황정연, 『고종연간 緝敬當의 운용과 宮中 書畫收藏』, 『문화재』 40권, 2007.
- 李泰鎭, 『奎章閣 中國本 圖書와 集玉齋圖書』, 『민족문화논총』 16, 1996.
- 정성미, 梁啓超의 『西學書目表』 연구, 중앙대석사, 2014.
-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5.

단행본

- 강재연, 『서양과 조선』, 학고재, 1998.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황호덕,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 소명출판, 2005.
- 강명관,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조선의 책과 지식은 조선사회와 어떻게 만나고 헤어졌을까?』, 천년의상상, 2014.
- 이재정, 『조선출판주식회사: 조선은 왜 인력과 물력을 동원하여 출판을 독점했을까?』, 안티쿠스, 2008.

번역서 및 외국논저

- 劉建輝, 『魔都上海』, 筑摩書房, 2010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y of research on the formation process of modern knowledge in Northeast Asian Sea Region

Seo Kwangdeok

In the process of accepting modern knowledge and establishing modern scholarship, Western scholarship, Western scholarship represented by modern knowledge, of course, has been introduced to East Asia in a certain way, You should look at how it was circulated. To do this, we need to understand what the content of the book is and what the book contains. The next point is how the book was disseminated and distributed, and what network people learned to share it. In this process, conflicts and conflicts arise between traditional learning and those who have learned it. This process works by intertwining religious, ideological, scientific, and kinetic aspects. The conflicts that occurred with the acceptance of Catholicism and Christianity in Korea and East Asia were really great, and the foundations of Western modern science represented by science were difficult to combine with traditional traditional scholarship.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tradition and the modern developed on this humanistic basis has been develop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e modern knowledge of the so - called Western world has been totally destroyed through the form of translation and the concept of translation. The confusion caused by the acceptance of the early new knowledge gradually became established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East Asian countries established school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trengthened them. Outside of such an institution set up by the state, popularization of knowledge was achieved through publishing. It should be noted here that the publication (or book prize) is carried out in the dissemination of modern knowledge at a different level than the official school. The review of the aspects of the network surrounding the modern knowledge developed in the sea area of Northeast Asia is an enormous task. This is important because of the fact that modern knowledge is not limited to a specific geographical area but grown within it. In addition, since this is constantly flowing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it must be checked longitudinally. Therefore, the period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s

동북아해역 근대 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사 검토
-서학(西學)의 수용과 한국 근대지(近代知)의 형성을 중심으로

set, and the region is limited to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the researcher is reviewed.

Keywords: Northeast Asian Sea Region, Modern Knowledge, Western Books, Publishing, Translation, Science

논문접수일 : 2019년 07월 09일
심사(수정)일 : 2019년 08월 03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8월 10일

K C I

КСІ